

‘여자 최장신 센터’ 하은주 은퇴

은퇴 후 학업에 매진하기로

신한은행 소속서 개인 집도 다 뺀 상황
동생 하승진 “시즌 마치고 대학원 다녀”

여자프로농구를 주름잡던 간판스타들의 은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삼성생명의 레전드 이미선(37)이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 신한은행의 국내 최장신 센터 하은주(33·202cm)도 은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FA 미련 없이 은퇴 결심

하은주는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25경기에 출전해 평균 5.16점·3.7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무릎 부상 때문에 정규리그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무리했다. 2월 1일 우리은행전 이후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낀 하은주는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연골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2월 4일)을 받았다.

하은주는 2015~2016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 부상 여파가 있는 데다 30대로 접어들면서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가 뒤따랐지만, 200cm가 넘는 장신 센터의 희소성은 여전하다. 그러나 하은주는 FA 여부와 상관없이 선수생활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측근에 따르면, 하은주는 이미 지난해 은퇴를 결심했지만 정인교 전 신한은행 감독의 만류로 한 시즌을 더 소화했다.

하은주는 은퇴 후 학업에 매진할 전망이다. 하은주의 남동생인 KCC 하승진(31)은 “누나는 예전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시즌을 마친 뒤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누나는 정말 열심히 뛰었고, 프로무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남기지 않았다. 선수생활에 큰 미련이 없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하은주는 신한은행 소속에서도 개인 집을 뺀 상태다.

●신기성 감독 “하은주와 이야기 나눌 것”

신한은행은 1일 신기성(41) 전 KEB



여자프로농구 최장신 센터 하은주(신한은행·왼쪽)가 은퇴를 결심했다. 하은주는 향후 학업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WKBL

하은은 농구 코치를 선임 감독으로 임명했다. 또 코치진에는 정선민(42) 전 KEB 신한은행 코치가 새로 합류했고, 전행수(38) 코치는 유임됐다. 새로운 코칭스태프를 구성한 신한은행은 4일부터 새 시즌을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 하은주는 4일 인천의 구단 숙소를 찾아 신 감독과 만날 예정이다. 하은주의 은퇴 소

식을 접한 신 감독은 “아직 (하)은주를 만나보지는 못했다. 구단과는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직접 만나서 은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본인 의사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이지희가 3일 일본 시즈오카현 가쓰라이 골프장에서 열린 JLPGA투어 아마하 레이디스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치며 역전우승에 성공했다. 이날 우승으로 개인통산 20승을 기록한 이지희는 KLPGA 영구시드도 획득했다.

이지희, JLPGA투어 통산 20승 달성

아마하 오픈 4R 버디 7개 역전우승
역대 6번째 KLPGA 영구시드 획득

이지희(37)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아마하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1억엔)에서 개인통산 20승째를 달성하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영구시드를 획득했다.

이지희는 3일 일본 시즈오카현 가쓰라이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내며 6언더파 66타를 쳤다. 선두 윤재영(29·한국)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이지희는 함께 9언더파 279타를 기록해 신지혜(28·6언더파 282타)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다.

2000년부터 JL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이지희는 2001년 다이오제지 엘리에르 레이디스오픈에서 첫 승을 따낸

뒤 이번 대회에서 통산 20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선수 수가 20승 고지를 밟은 건 고(故) 구옥희(24승), 전미정(22승), 안선주(20승)에 이어 4번째다. 또 20승을 거둔 이지희는 역대 6번째로 KLPGA투어 영구시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LPGA는 국내투어를 비롯해 미 LPGA와 JLPGA, 유럽여자골프(LET)투어에서 20승 이상을 거둔 선수에게 영구시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지희는 구옥희(국내 20승, 미·일 24승), 박세리(국내 8승, 미국 25승), 전미정(국내 2승, 일본 22승), 신지혜(국내 20승, 미·일 19승), 안선주(국내 7승, 일본 20승)에 이어 6번째 수혜자가 됐다. JLPGA투어는 30승을 해야 영구시드를 준다.

개막 5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올린 이지희는 데뷔 첫 상금왕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일본에서 17년째 뛰고 있는 이지희는 아직 한 번

도 상금왕에 오르지 못했다. 2003년과 2008년, 2011년 3차례 상금랭킹 2위에 오른 것이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다. 이지희는 시즌 개막에 앞서 “체력에 문제가 없고, 4~5년 정도 거뜰하게 뛸 수 있다. 올해 상금왕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우승상금 1800만엔을 받은 이지희는 시즌 총상금 2014만9000엔으로 상금랭킹 43위에서 5위로 쉼쉼 뛰어났다.

한편 일본여자골프에 나선 윤재영은 공동 3위에 만족했다. 3라운드까지 2타 차 단독 선두였던 윤재영은 이날 버디와 보기를 3개씩 주고받으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함께 5언더파 283타로 와타나베 아야카와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하늘(28·하이 트진로)은 개막전부터 4경기 연속 이어 은 톱10(우승 포함) 행진을 마쳤다. 함께 2오버파 290타를 쳐 공동 13위를 기록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입대와 FA가 동시에…지태환·김천재 딜레마

KOVO, FA 협상 일정 앞당기기로
군 입대 불이익…선택 불가 아쉬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갖춘 선수가 FA 협상 기간 전에 군에 입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례가 없었던 일인 한국배구연맹(KOVO)과 남자구단 사무국장들이 모였다. V리그에 FA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례의 주인공은 삼성화재 지태환과 OK저축은행 김천재다. KOVO는 3월 30일 2015~2016시즌 일정을 마치자마자 FA 명단을 공시했다. 종료된 시즌을 기준으로 FA 자격(리그 전체 경기의 25% 이상 출전할 경우 한 시즌으로 계산해 최초의 FA는 5시즌, 고졸선수는 6시즌을 채워야 한다. 이후 3시즌을 채울 때마다 FA 자격을 다시 획득한다)을 얻은 남자 20명, 여자 14명을 발표했다.

●삼성화재 지태환이 KOVO의 FA 협상 일정과 따로 협상하는 이유

문제는 지태환이 4월 29일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에 입대한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KOVO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FA는 팀에 오래 공헌한 선수에게 주는 보상이자 선수의 권리인데, 군복무로 이를 당분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의였다. KOVO는 다시 고문번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선수의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는 것이 FA 제도의 취지에 맞다”였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자 각 구단 사무국장들의 모임인 실무회의에서 양해를 요

청했다.

현재 KOVO의 규정에 따르면 FA 선수는 공시 이후 5월 10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삼성화재가 이때 지태환과 협상을 마치지 못하면 다른 구단과 협상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군에 입대하는 지태환에게는 그런 기회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양해를 구했다. 실무회의는 지태환에 한해 FA 협상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태환이 입대하기 전날인 4월 28일을 테드라인으로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협상기간을 줄이는 새 FA 협상 일정을 확정했다. 4월 14일까지 삼성화재와 먼저 협상한 뒤 일주일 간격으로 2차 협상, 3차 협상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 지태환과 다른 구단들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KOVO가 잘 마무리했다고 안심하던 순간, 새로운 문제가 또 터졌다. 바로 OK저축은행이었다. 소속선수 가운데 3명이 4월 18일 입대하는데, 이 가운데 FA 김천재가 끼어 있었다. 구단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KOVO에 요청했다. 소속선수가 언제 군에 입대하는지, FA 권리를 언제 가지는지조차 프린트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심정제, 조국기, 김천재는 상무로 입대하는데 결국 지태환의 경우처럼 김천재도 FA 협상기간을 앞당기고 타 구단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듯하다.

●규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의사와 이해를 가장 고려해야

이번 지태환, 김천재의 사례에서 아

쉬운 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선수의 권리보호를 위해 KOVO가 유권해석을 통해 기회를 준 것이지만, 2년간 공백이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과연 어떤 구단이 F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조건을 제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 선수가 엄청 뛰어난 기량을 지녔고 풀다면 기꺼이 2년의 기다림을 감수하고 투자할 구단이 나오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황이 그렇다면 선수가 군 복무를 마치고 협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선수에게 정말로 유리한 것인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삼성화재는 “그동안 우리 팀에서 오래 공헌한 선수니까 최대한 설심하지는 않게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뉘앙스로 보서는 삼성화재가 우선협상 기간에 지태환과 FA 계약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군입대 변수가 없을 때만큼과 감하게 베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태환은 정말 억울한 사례다.

KOVO는 이번 일을 계기로 FA 관련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때 KOVO와 구단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선수의 이해와 입장이다. 이번에도 당사자에게 언제 FA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고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했다. 권리의 경우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권리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상황변동에 따른 유·불리를 놓고 후회도, 오해도 생기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 때 가져야 할 기본생각이다. 한쪽의 입장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은 곤란하다.

김종건 전반기 기자 marco@donga.com

박성현 “아쉬움 남지 않는 경기 하겠다”

ANA인스퍼레이션 3R 공동 7위
美 원정 3경기 ‘유종의 미’ 꿈꿔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아쉬움 남기지 않겠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원정길에 올라 세 번째 대회인 ANA인스퍼레이션(총상금 260만 달러)에 출전 중인 박성현(23·넵스·사진)이 4일(한국 시간) 열리는 최종라운드에서 아쉬움 없는 경기를 하고 돌아오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박성현은 3일 끝난 3라운드까지 선두 렉시 톰슨(미국·10언더파 206타)에 3타 뒤진 공동 7위(7언더파 209타)에 올라 있다.

박성현은 경기 후 “LPGA투어 3주차 경기의 마지막이다.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에 설레기도 하지만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한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 공헌한 선수니까 최대한 설심하지는 않게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뉘앙스로 보서는 삼성화재가 우선협상 기간에 지태환과 FA 계약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군입대 변수가 없을 때만큼과 감하게 베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태환은 정말 억울한 사례다.

김시우·김민휘, 3라운드 공동 10위
김시우(21·CJ오쇼핑)와 김민휘(25·나이기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셀 휴스턴오픈(총상금 680만 달러) 셋째 날 나란히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시우는 3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협블의 휴스턴 골프 클럽(파72·7457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4개를 얹어 3언더파 69타를 신고했다.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로 공동 10위로 뛰어 올랐다. 김민휘도 이날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1개를 적어내 김시우와 함께 공동 10위를 마크했다.



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수 차도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역전 우승의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박성현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미국 원정 3경기를 마무리한다. 당초 목표는 전지훈런 점검과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LPGA투어에 출전해 예비고사를 치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면서 미국 진출에 대한 시기 조

절도 고려해볼만 하다. 박성현은 지금까지 미국 진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해 시즌을 끝낸 뒤 “만약 LPGA투어에서 우승하더라도 당장 미국으로 진출할 생각은 없다. 지금로서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은 준비가 될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LPGA 무대를 직접 경험하기 이전의 생각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박성현은 2주 전 열린 기아클래식에서 공동 13위에 올랐고, 이어 JTBC파운더스컵 공동 4위를 기록했다. 박성현은 여전히 미국 진출에 대해 신중했다. 그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LPGA투어에 진출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면서 “만약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말(12월)에 열리는 캘리포니아스에 도전할 생각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상으로 한 달 만에 복귀한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이날도 3타를 더 줄이면서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를 쳐 리디아 고(뉴질랜드), 아리아 주타누가(태국)와 함께 공동 2위를 마크했다.

주영로 기자

최다빈, 세계피겨선수권 종합 14위
여자피겨스케이팅 기대주 최다빈(16·수리고)이 3일(한국 시간) 미국 보스턴 TD가든에서 열린 2016 국제빙상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57.66점, 예술점수(PCS) 46.24점으로 합계 103.90점을 받아 종합 14위에 올랐다. 처음으로 세계선수권에 나서 이를 전 쇼트프로그램에서 56.02점을 얻은 최다빈은 총점 159.92점으로 24명 중 14위로 대회를 마쳤다.

편집 | 고광일 기자 ico@donga.com